

또 문화재를 개방해야만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〇〇년 7월 〇〇일 신문 기사를 보니 고궁 가운데 한 곳인 〇〇궁에 곰팡이가 번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마인데 문을 닫고만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가 궁궐 안으로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바람이 통하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 나간다고 생각한 뒤에 힘을 모으면 ‘살아 있는’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3. 2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 (2)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옛 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여름 장마철에 생기는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
- _____

4.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해 봅시다.

(1)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한 두 글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합니다. 이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며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의견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른 문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망가진 문화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	그렇게 생각한 까닭

(3)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제와의 관련성, 의견과 뒷받침 내용의 관련성, 뒷받침 내용의 사실 여부 따위를 확인해야 해요.



5.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해 봅시다.

친구 이름	의견	평가 결과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